

고등학생때 교회 출석하며 세례받고 리더로 잘 섬겨왔던 팜 자매가 올 해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우본대학 조교수로 임용이 되어 타지역에 가지 않고 교회 후배들을 더 섬길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방콕에 사는 부모님은 차를 박사학위 선물로 해 주었는데 물론 할부는 팜자매가 감당 해야 하지만 이 날 모두 축하하며 기뻐해 주었고 예배를 마치고 모두 차에 둘러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안전사고와 함께 주님 섬기는데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올려 드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난 8 월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를 하였습니다. 이 날만 손꼽으며 기다려왔던 아이들은 그동안 한 달란트 한 달란트씩 모아 왔던 소중한 달란트를 사용하며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많이 받은 아이들은 없는 친구에게 나누어주기도 하는 예쁜 모습에 교사들은 흐뭇해 하기도 했습니다. 달란트 시장 오픈전 어른예배에 특별 찬송도 하고 오후에 말씀과 게임하는 시간도 갖었습니다. 과일 음료수를 대접하는 한 성도님 덕분에 더 풍성한 달란트 잔치가 되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수영장을 다녀왔습니다. 찬양과 기도후 교회차와 성도님의 차에 올라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모두 수영장에서의 규칙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정해진 규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단단히 하고 물놀이를 시작한 이 날 아이들이 서로 친해지는 좋은 시간이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여 감사했습니다.

